

장애아동을 위한 자기결정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메타분석연구

Meta-Analysis on the Effect of Self-Determination Group Program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박정임

서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Jung-Im Park(strjung@seoil.ac.kr)

요약

본 연구에서는 최근 국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장애아동을 위한 자기결정 집단프로그램의 효과크기를 통합하여 제시하고, 보다 효과적인 자기결정 집단프로그램의 실천전략을 제시하기 위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7년 6월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석·박사 학위논문 및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 메타분석의 대상선정기준에 따라 최종 17편의 논문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메타분석을 위해서는 CMA(Comprehensive Meta-Analysis) software 2.0을 사용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문제 1은 '자기결정 집단프로그램의 평균효과크기는 어느 정도인가'이었다. 연구결과, 랜덤효과모형에 따라 자기결정력의 효과크기는 1.695, 사회기술은 1.316로 나타나서 모두 큰 효과크기를 나타내고 있었다. 둘째, 연구문제 2는 '자기결정 집단프로그램은 조절변수에 따라 효과크기가 다른가?' 이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자기결정력'에 있어서 연령, 장애유형, 총 횟수, 주당 횟수, 1회당 시간, 진행자 전공 등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결과와 함의를 제언하였다.

■ 중심어 : | 장애아동 | 자기결정 집단프로그램 | 메타분석 |

Abstract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Self-Determination Group Program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Korea by using method of meta-analysis.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master's theses, doctoral dissertations, and journal articles published in Korea up to June, 2017 were systematically reviewed. As a result, a total of 17 studies were eligible for the inclusion criteria. The mean effect sizes and test for homogeneity of effect size(Q-statistic) were analyzed by using Comprehensive Meta-Analysis software 2.0. The main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average effect sizes for Self-Determination Group Program were ES=1.695 of Self-Determination, ES= 1.316 of Social Skills. Second, the moderate variables of the effect size for Self-Determination Group Program was 'age' of 'a type of disability', 'sessions', 'the number of sessions within a week', 'time of one session' and 'a major of the director'. Based on the study results, the research and practice implications were discussed.

■ keyword : | Children with Disabilities | Self-Determination Group Program | Meta-analysis |

* 본 논문은 2017년도 서일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접수일자 : 2017년 11월 07일

수정일자 : 2017년 11월 24일

심사완료일 : 2017년 11월 24일

교신저자 : 박정임, e-mail : strjung@seoil.ac.kr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자기결정은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어 온 개념이다. 사회복지분야에서 자기결정은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욕구와 권리로서, 가장 중요한 사회복지실천의 원리 중의 하나로서 강조되어 왔다. 심리학 분야에서 자기결정은 외적인 힘이나 압력이 아닌,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자신의 능력으로 동기와 관련된 개념으로 강조되어 왔다. 특수교육분야에서 자기결정은 정상화와 탈시설화 운동이후 역량 강화, 자기옹호의 차원에서 장애인의 삶에 통제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하나의 권리로서 강조되어 왔다[1].

이와 같은 자기결정이 장애인들에게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외국의 경우 1970년대 초부터라고 할 수 있다 [2]. 그 중에서도 미국의 경우에는 1990년과 1997년 장애인교육법과 1992년 재활법에 장애학생의 주체적인 삶 영위를 위한 권리와 자기결정을 촉진하는 전환서비스 지원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고, 2004년도 장애인교육법 개정안에서는 장애아동의 자기결정을 실제적으로 교육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였다[3].

장애인을 위한 자기결정이 법적 근거들을 갖게 되면서, 이후 장애인의 자기결정과 관련된 외국 연구들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장애아동의 자기결정은 삶의 질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장애의 경중에 상관없이 생애 내내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발달 과업이라는 점 등이 강조되면서, 2000년대 이후 외국에서는 장애아동을 위한 자기결정의 이론, 프로그램개발, 효과성 연구 등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2].

그동안 국내에서도 장애인복지법에서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지원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었으며(제 53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장애인의 선택 및 결정의 권리와 비장애인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한 권리에 대한 법적근거(제 7조), 장애인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근거(제 3조) 등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장애아동의 자기결정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에 대한 법적 조항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한편, 국내에서도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자기결정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기 시작하였다. 최근 들어 장애아동을 위한 자기결정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효과성 연구도 확대되고 있으며[2], 장애학생의 자기결정 중재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메타분석연구도 두 편의 연구에서 이루어졌다[3][4]. 그러나, 이러한 메타분석 연구들은 분석대상으로 통제집단이 없는 연구들을 포함하거나, 분석대상연구의 효과크기를 한가지 종속변수로 모두 통합하여 제시하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국내의 개별연구에서 장애아동을 위해 시행된 자기결정 집단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메타분석’이라는 연구방법을 통해서 점검해보고, 이를 통해 향후 보다 효과적인 장애아동을 위한 자기결정 집단프로그램의 전략과 내용 등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메타분석은 개별연구들의 효과성 결과를 동일한 측정치로 환산하여 종합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분석법이다[5]. 본 연구에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은 국내에서 실시된 장애아동을 위한 자기결정 집단프로그램의 평균효과크기는 어느 정도인가?, 연구문제 2는 자기결정 집단프로그램은 조절변수에 따라 효과크기가 다른가? 이다.

II. 선행연구

1. 자기결정의 개념 및 프로그램유형

Ryan와 Deci(1985)는 자기결정이란 “스스로 선택을 하고, 선택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개념으로 개인의 동기화된 행동을 완성시키는데 기여하는 본질적인 내적 욕구”라고 정의하여 자기결정은 ‘심리적 욕구’라는 점을 강조하였다[6].

Field와 Hoffman(1996)은 자기결정이 “자신의 가치와 지식에 기반을 둔 목적을 설정하고 달성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7]. Ward(2005)도 자기결정은 “유아기에 시작되어 성인기 내내 지속되는 하나의 발달적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이상적인 성과는 의미 있는 목적을 세우고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하였다[8]. 이러한 연구자

들은 자기결정을 주로 개인의 능력의 관점에서 다루었다.

한편, 장애인의 자기결정에서 환경적 지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연구자들도 있었다. Brown 등(1998)은 "장애인들은 자기결정에 성공하기 위해서 환경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9]. Abery와 Stancliffe(2003)도 자기결정은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기결정에 있어서 개인적 능력이 중요하지만, 장애인들에게는 자기결정기술을 습득하는데 원조가 필요하며 좀 더 환경적 지지와 환경 내에서 선택의 기회들이 주어져야 한다고 하였다[10]. Whemeyer(2006)도 개인이 자기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내적 태도와 능력도 중요하지만 환경 내에서 그것을 지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하며, 장애인의 경우에는 더욱 환경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11].

이와 같은 자기결정의 개념에 대한 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외국에서는 장애아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유형이 개발되었다. Field와 Hoffman(1996)은 지적장애 및 학습장애 학생과 비장애학생들의 자기결정력에 대한 지식, 기술, 신념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결정 훈련프로그램(Step to Self-Determination)을 개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자기인식, 자기가치알기, 계획수립, 활동하기, 결과에 대한 평가와 반성 등의 5단계 순환적인 과정으로 되어 있으며, 10가지 전략을 사용하여 총 16개 단원에 걸쳐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7].

Halpern 등(1997)은 14세에서 21세의 장애 및 비장애 학생들의 전환교육을 위한 자기결정프로그램(The Next S.T.E.P)을 개발하였는데, 이는 자기탐색, 평가, 목표수립과 활동, 실행하기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신의 장·단점 및 희망과 꿈,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도움을 주기 위해 설계되었다[12]. Wehmeyer(2006)는 자기결정을 위한 지식획득, 전환참여, 자신감회복 등을 목적으로 자기결정프로그램(Whose Future is it Anyway? A Student-directed Transition Planning Process)을 개발하였다. 이것은 자기인식, 의사결정, 필요한 것을 획득하는 방법, 목표와 미래, 의사소통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11].

Abery 등(1995)는 자기결정을 위한 다요소프로그램(Multicomponent Education and Support Program

Designed to enhance Self-Determination)을 개발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은 자기인식, 자기존중, 통제소재 파악, 자기가치, 목표설정, 의사소통, 선택기술, 자기조정, 문제해결, 자기옹호 등의 10개 단원과 가족교육과 가족 지원 프로그램 강화를 위한 단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13]. 본 연구의 대상인 연구들이 시행한 자기결정프로그램에서도 위에서 제시한 외국의 자기결정 훈련프로그램들과 국내의 일부 연구들을 병합하여 시행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 자기결정 집단프로그램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자기결정 집단프로그램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하여, 자기결정 중재프로그램의 메타분석을 시도한 국내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김수진 등(2013)의 장애학생을 위한 자기결정 중재의 메타분석연구에서는 '연령대', '총회기수', '1회기 시간', '연구참여자 수' 등이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나타났다[4]. 또한, 이옥인 등(2011)의 장애학생을 위한 자기결정 중재프로그램의 메타분석연구에서는 '장애유형', '평정자 유형', '학교유형', '중재기간', '지능지수' 등이 효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3]. 그러나, 이러한 메타분석연구들에서는 통제집단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효과크기를 모두 통합하여 제시하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집단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이 조절변수로 입증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한편, 국내 199편의 연구를 대상으로 집단상담 및 집단프로그램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메타분석한 김계현(2002)의 연구에서는 집단프로그램 메타분석의 효과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로 집단구성원들의 특성(연령, 상담필요성여부), 집단상담 처치의 특징(접근이론, 목적과 내용, 집단진행의 구조, 회기수, 한회기의 길이, 집단크기), 기타 연구방법상의 특성(추수평가기간, 집단배정의 무작위성)들을 분석하였으며, 실증적으로 효과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로 집단을 진행하는 구조나 방법 등(효과크기가

큰 경우: 정기적인 회기인 경우, 10-14회기 인 경우, 46-75분인 경우, 실험집단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무선배정인 경우 등)을 제시하였다[14].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 등을 바탕으로 자기결정 집단프로그램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메타분석방법과 자료수집

메타분석은 개별연구들의 효과성 결과를 동일한 측정치로 환산하여 종합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분석법이다[5]. 먼저, 메타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장애아동을 위한 자기결정 집단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들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2017년 6월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논문을 검색하였다. 분석대상을 찾기 위해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을 중심으로 검색하였으며, 키워드는 “자기결정”과 “효과”, “영향” 등으로 하였다. 키워드에 의해서 검색된 학위논문 5251편과 학술지 논문 1629편 중에서도 분석대상은 다음과 같은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선정하였다. 메타분석의 선정조건으로는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이 분명한 연구이어야 하며, 평균점수와 표준편차 등 주요 결과들과 통계적 유의도수준이 밝혀진 연구이어야 한다는 점들이 있다[5]. 본 연구에서도 선정기준으로써 첫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분명한 실험 연구로써 둘째, 연구결과에 표본 수, 평균점수, 표준편차 등 수치가 제시되고 있으며 셋째, 독립변수는 장애아동을 위한 자기결정 집단프로그램으로 진행된 경우로 하였다. 이와 같은 선정기준에 따라, 메타분석의 연구대상으로 21개의 논문을 선정하였다. 이 중에서도 학위논문과 학술지논문이 겹치는 경우 등을 제외하여서 총 17개의 논문을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2. 자료분석

2.1 효과크기

메타분석에서 효과크기는 메타분석을 가능케하는 단위으로써 개별연구들의 결과들을 서로 비교 가능하도록 공통의 단위로 변환시킨 것이다. 따라서 효과크기를 기

준으로 하여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서 얼마나 개입의 효과가 있었는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5]. 본 연구에서는 효과크기분석을 위해서 CMA(Comprehensive Meta Analysis v2.0)를 활용하였으며 효과크기 해석을 위해서는 Cohen의 d 를 활용하되 이 효과크기는 샘플사이즈에 의해 영향을 받아 추정의 bias를 포함하기 때문에 bias가 제거된 효과크기인 Hedges의 g 를 활용하였다.

2.2 동질성 및 출판편의검증

일반적으로 메타분석방법에서는 분석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전체 연구논문들에 대한 동질성 검증을 먼저 실시한다. 동질성 검증은 관찰된 모든 분산이 연구 내 오차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영가설로 하여 이를 검증한다. 분석결과에서 연구결과들의 동질성이 검증된다면, 연구들이 제시한 연구결과가 일관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전체효과크기를 제시함으로써 연구를 종료할 수 있으나, 전체연구들의 동질성 검증이 실패할 경우에는 조절변수의 영향력을 사정해야 한다[5]. 본 연구에서는 장애아동을 위한 자기결정 집단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연구간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Q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조절변수의 탐색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랜덤효과모형을 활용하여 조절변수를 탐색하였다. 또한, 자료분석에서는 출판편의를 알아보기 위해 깔때기 그림(Funnel plot)을 확인하였으며, 분석결과, 깔때기 그림은 서로 대칭을 이루어 편향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연구결과

1. 종속변수 선정

장애아동을 위한 자기결정 집단프로그램을 실시한 논문 중 최종분석을 실시한 논문은 총 17편으로 [표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 연구물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 효과성의 종속변수들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하였다. 왜냐하면, 개별연구에서 다양하게 조사된 종속변수들을 모두 통합해서 제시하는 경우는 종속변수의 다양성을 간과하는 한계가 있었고, 일부 종속변

수의 경우에는 1편에서만 활용된 경우가 있어서 메타 분석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분석결과, 종속 변수로써 자기결정력을 활용한 논문은 15편이었으며, 사회기술은 4편이었다. 이때 사회기술은 개별연구에서 사회기술, 문제해결력, 사회적응기술로 측정된 경우도 포함하였다. 이들 종속변수의 효과크기는 총 21개가 분석되었다.

표 1. 연구대상 문헌분석

번호	저자/년도	인원(실험/통제)	연령/장애 유형	총 횟수	1 주당 횟수	1회기 시간	프로그램 특성	진행자 전공	종속 변수	Effect Size
1	이영철 외 2010	25/25	초등/지적 장애	32	4	40	자기 결정	특수 교육	자기 결정	1.067
2	박성우 외 2005	20/20	중등/지적 장애	27	2	40	자기 결정	특수 교육	자기 결정	1.076
									문제 해결 기술	1.710
3	김수진 외 2011	10/10	중등/발달 장애	30	3	50	자기 결정	특수 교육	자기 결정	3.397
4	배영철 외 2008	10/10	중등/지적 장애	24	2	40	+ 디지털 카메라	특수 교육	자기 결정	3.177
5	신진숙 외 2008	10/10	고등/지적 장애	18	2	40	+ 동영상에 니메이션	특수 교육	자기 결정	1.458
6	임은영 외 2007	13/13	초등/지적 장애	30	5	40	자기 결정	특수 교육	자기 결정	0.478
7	조인수 외 2009	40/40	중등/지적 장애	25	2	40	자기 결정	특수 교육	자기 결정	2.827
8	김혜경 2003	76/81	고등/지적 장애	19	2	50	자기 결정	특수 교육	자기 결정	0.610
9	이영미 2006	11/10	고등/지체 뇌병변	14	2	60	자기 결정	사회 복지	자기 결정	0.563
10	최진성 2007	10/10	고등/지적 장애	18	2	40	+	특수 교육	자기 결정	1.504
11	장유정 2015	20/20	초등/학습 부진	24	2	40	자기 결정	특수 교육	자기 결정	0.862
12	류수철 15/15	15/15	중등/지적 장애	30	3	40	자기 결정	교육	자기 결정	1.002
13	윤형진 2009	20/20	중등/지적 장애	25	2	40	자기 결정	특수 교육	자기 결정	3.007
									사회 적응 기술	3.066

14	김정연 2011	10/10	초등/지적 장애	20	2	40	자기 결정	특수 교육	자기 결정	3.307
15	신은희 2010	25/25	초등/지적 장애	32	4	40	자기 결정	교육	자기 결정	1.067
16	김재홍	15/13	초등/지적 장애	32	4	40	자기 결정	특수 교육	사회 기술	0.578
17	한승희	20/20	초등/학습 부진	14	3	40	자기 결정	특수 교육	문제 해결 기술	2.595

2. 종속변수별 효과크기 및 동질성검증

자기결정 집단프로그램의 효과크기를 산출하기 위해 종속변수인 자기결정력, 사회기술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2].

자기결정 집단프로그램의 효과크기를 살펴보면, 랜덤효과모형에 따라 자기결정력의 효과크기가 1.695로 나타났고, 사회기술의 효과크기가 1.316으로 나타났다. Cohen(1988)은 효과크기 해석기준으로 $ES \geq 0.80$ 을 큰 효과크기, $ES \geq 0.50$ 을 중간 효과크기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한다면, 국내에서 장애아동을 위한 자기결정 집단프로그램은 큰 효과크기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의 내적타당성 확보를 위해 출판편의를 살펴본 결과 각 퍼널 플롯(Funnel plot)은 대칭을 이루고 있었으며 Rosenthal 안전계수(failsafe) N가 자기결정력이 189개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 자기결정력, 사회기술의 효과크기와 동질성 검증

구분	연구 물수	Hedges'g	Q	df	p
자기결정력	15	1.695	104.115	14	0.000
사회기술	4	1.316	32.896	3	0.000

다음으로 자기결정력, 사회기술에 대한 동질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각각 $Q = 104.115$, $Q = 32.896$ 등으로 $P < .001$ 수준에서 연구 내 효과크기가 동질적이라는 영가설이 기각되었다. 이에 따라서 각각 종속변수별로 어떠한 조절변수에 따라 효과크기가 차이가 나타나는가에 대한 조절변수를 탐색해 볼 필요성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조절변수를 선정함에 있어서 선행연구를 검토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따라서, 메타분석 관

연구에서 자기결정 집단프로그램의 효과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제시한 연령, 장애유형(발달장애/발달장애 외), 총 횟수, 1주당 횟수, 1회기 시간, 프로그램특성(자기결정 집단프로그램/IT방법과 자기결정 집단프로그램을 병합한 경우), 진행자전공을 조절변수로 선정하였다. 특히, 프로그램 특성면에서는 자기결정 집단프로그램을 실행한 경우와 동영상, 디지털 등 IT기술을 자기결정 집단프로그램에 접목한 경우 등을 구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조절변수는 연구간 분산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절변수당 최소 열 개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전제가 있다는 점[5]을 감안하여, 사회기술은 제외하고 자기결정력의 조절변수를 분석하였다.

3. 조절변수에 대한 분석

3.1 자기결정력의 조절변수

자기결정 집단프로그램의 실행에 따른 자기결정력인 연령, 장애유형(발달/발달장애 외), 총 횟수, 1주당 횟수, 1회기 시간, 프로그램 특성, 진행자전공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메타아노바와 메타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령’에 따라 자기결정력의 효과크기 동질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Q=8.599$, $p<.05$ 로 하위집단간 효과크기가 동질하다는 영가설을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결정 집단프로그램은 고등학생들의 자기결정력에 가장 큰 효과크기를 보이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중등, 초등순으로 효과크기가 나타났다.

‘장애유형’에 따라 자기결정력의 효과크기 동질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Q=4.313$, $p<.05$ 로 하위집단간 효과크기가 동질하다는 영가설을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결정 집단프로그램은 발달장애의 아동(학습, 지체, 뇌병변)보다는 발달장애아동들의 자기결정력에 큰 효과크기를 보이고 있었다. ‘총횟수’에 따라 자기결정력의 효과크기 동질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Q=7.159$, $p<.05$ 로 하위집단간 효과크기가 동질하다는 영가설을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결정 집단프로그램은 총횟수가 20-29회인 경우에 자기결정력에 가장 큰 효과크기를 보이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30회 이상, 20회 미만의 순으로 효과크기가 나타났다.

‘1주당 횟수’에 따라 자기결정력의 효과크기 검정을 실시한 결과, $Q=25.086$, $p<.000$ 으로 3회가 가장 큰 효과크기를 나타내었고 2회, 4회 이상으로 나타났다. ‘1회기 시간’에 따라 자기결정력의 효과크기 동질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Q=4.906$, $p<.10$ 로 하위집단간 효과크기가 동질하다는 영가설을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결정 집단프로그램은 1회기당 50분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자기결정력에 가장 큰 효과크기를 보이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40분, 60분순으로 효과크기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진행자 전공에 따라 자기결정력의 효과크기 동질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Q=5.129$, $p<.05$ 로 하위집단간 효과크기가 동질하다는 영가설을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결정 집단프로그램은 진행자가 특수교육외 전공(교육, 사회복지)보다는 특수교육전공자인 경우에 큰 효과크기를 보이고 있었다.

표 3. 자기결정력의 조절변수

구분	사례수	Hedges'g	Q	df	P	
연령	초등	5	0.930	8.599	14	0.014
	중등	6	1.345			
	고등	4	1.513			
장애유형	발달장애	13	1.773	4.313	14	0.038
	발달장애외 (지체, 학습, 뇌병변)	2	0.862			
총횟수	20회미만	4	0.915	7.159	14	0.028
	20-29회	6	2.358			
	30회이상	5	1.470			
1주당 횟수	2회	10	2.103	25.086	14	0.000
	3회	2	3.053			
	4회	3	0.952			
1회기 시간	40	12	1.690	4.906	14	0.086
	50	2	2.233			
	60	1	0.586			
진행자 전공	특수교육	13	1.781	5.129	14	0.024
	특수교육외 (교육, 사회복지)	2	0.586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문제 1은 ‘자기결정 집단프로그램의 평균 효과크기는 어느 정도인가’이었다. 연구결과, 랜덤효과모형에 따라 자기결정력의 효과크기는 1.695, 사회기술은 1.316로 나타났다. Cohen(1988)은 효과크기 해석기준등

을 근거로 판단한다면, 국내에서 장애아동을 위해 실시된 자기결정 집단프로그램은 자기결정력, 사회기술에 모두 큰 효과크기를 나타내고 있었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자기결정력 집단프로그램이 실증적으로 장애아동의 자기결정력과 사회기술에 큰 효과가 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의미가 있었다. 이는 장애아동들의 자기결정력이 교육 및 훈련을 통해서 향상될 수 있다는 자기결정이론들과[2] 메타분석 및 여러 국내외 연구의 결과들과[3][4]을 뒷받침하였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었다.

둘째, 연구문제 2는 자기결정 집단프로그램은 조절변수에 따라 효과크기가 다른가?이었다. 연구문제 2의 입증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결정 집단프로그램의 효과크기가 조절변수(연령, 장애유형, 총 횟수, 1주당 횟수, 1회기 시간, 프로그램특성, 진행자전공)에 따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았다. 첫째, '연령'면에서 자기결정 집단프로그램은 고등학생에게 가장 큰 효과크기가 나타났고 중등, 초등 순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이옥인 등(2011)의 메타분석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로써, 향후에 고등학생들에게 자기결정 집단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해서 시행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 '장애유형'면에서 자기결정 집단프로그램은 발달장애외(지체, 학습, 뇌병변) 아동보다는 발달장애아동들의 자기결정력에 큰 효과크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이옥인 등(2011)과 김수진 등(2013)의 메타분석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로써, 이들 연구에서도 자기결정 집단프로그램은 발달장애아동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국내외에서 개발된 자기결정프로그램들의 내용과 전략들이 주로 발달장애아동들을 중심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생긴 결과가 아닌가 사료된다.

셋째, '총횟수'면에서 자기결정 집단프로그램은 총횟수가 20-29회인 경우에 자기결정력에 가장 큰 효과크기를 보이고 있었으며 30회 이상, 20회 미만의 순이었다. 김수진 등(2013)의 연구결과에서도 자기결정중재가 10회기-30회 미만으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무조건적으로 자기결정 집단프로

그램을 지속하는 것보다는 20회-29회 정도 시행하고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넷째, '1주당 횟수'에서 자기결정 집단프로그램은 3회가 가장 큰 효과크기를 보였고 2회, 4회 순으로 나타났다. 대다수가 2회를 실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1회 정도 횟수를 늘리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었다. 다섯째, '1회기 시간'면에서 자기결정 집단프로그램은 1회기 시간을 50분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자기결정력에 가장 큰 효과크기를 보이고 있었으며 40분, 60분 순으로 효과크기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김수진 등(2013)의 연구결과에서 1시간~1시간 30분 미만이 가장 효과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난 점과 다소 상이하였는데, 본 연구의 대상이었던 연구들은 대부분 40분-50분이었고 이는 장애아동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한 시간이 아닌가 사료된다.

여섯째, '진행자 전공'면에서 자기결정 집단프로그램은 진행자가 특수교육의 전공(교육, 사회복지)보다는 특수교육전공자인 경우에 큰 효과크기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 특수교육을 전공한 진행자들이 장애아동을 위한 자기결정 집단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었고, 특수교육분야가 자기결정에 대한 연구나 관심 등도 타 분야에 비해서 현저하게 높기 때문에 생긴 결과가 아닌가 사료된다.

본 연구는 여러 가지 의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들이 있었다. 현재 국내에서 장애아동을 위한 집단프로그램들의 시행이 부족한 실정이며[33], 자기결정 집단프로그램의 연구들은 늘어가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질 높은 실험연구들은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국내 자기결정 집단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에서는 메타분석의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분석대상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질 높은 자기결정 집단프로그램이 좀 더 확산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좀 더 많은 효과성 연구들을 포괄한 메타분석 연구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집단프로그램의 특성(내용, 방법)이 조절변수로 입증되지 못했는데, 이는 기존의 자기결정프로그램의 내용이 이론적 근거가 부족하고 여러 프로그램들을 병합한 경우가 많아서 생긴 결과가 아닌가 사료된다. 또한, IT 방법 등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접목하여 진행전략이나 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겠다. 향후 메타분석연구에서는 프로그램 목적이나 내용을 좀 더 분명한 기준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조절변수들이 입증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1] 김경양, 박은혜, “지체 및 중복장애 분야에서의 자기결정 관련 연구동향 고찰,”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제57권, 제1호, pp.45-68, 2014.
- [2] 이숙향, “국내외 문화적 맥락에서의 자기결정에 대한 이해 및 현장적용을 위한 고찰: 장애학생의 자기결정에 대한 인식 및 영향요인에 대한 국내외 문헌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제10권, 제1호, pp.1-32, 2009.
- [3] 이옥인, 박은영, 신인수, “장애학생의 자기결정에 대한 중재프로그램의 효과: 메타분석,” 중복 지체부자유연구, 제54권, 제3호, pp.101-121, 2011.
- [4] 김수진, 하정숙, “장애학생을 위한 자기결정 중재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 특수교육연구, 제20권, 제1호, pp.25-46, 2013.
- [5] 오성삼, *메타분석의 이론과 실제*, 서울: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7.
- [6] R. M. Ryan and E. L. Deci,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Vol.55, No.1, pp.66-78, 2000.
- [7] S. Field and A. Hoffman, “Steps to self-determination: A curriculum to help adolescents learn to achieve their goals. Austin, TX: Pro-Ed., 1996.
- [8] M. J. Ward, “An historical perspective of self-determination in special education: Accomplishments and challenges,” *Research and Practice for Persons with Severe Disabilities*, Vol.30, No.3, pp.108-112, 2005.
- [9] F. Brown, C. R. Gothelf, D. Guess, and D. H. Lehr, “Self-determination for individuals with the most severe disabilities: Moving beyond chinema,”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Persons with Severe Handicaps*, Vol.23, No.1, pp.17-26, 1998.
- [10] B. H. Abery and R. J. Stancliffe, “A tripartite-ecological theory of self-determination,” In Wehmeyer, M. L. Abery, B. H. Mithaug, D. E. & Stancliffe, R. J. *Theory in Self-Determination: Foundations for Educational Practice*. Charles C Thomas Publisher, LTD, Springfield, 2003.
- [11] M. L. Wehmeyer, “Self-determination and individuals with severe disabilities: Re-examining meanings and misinterpretations,” *Research and Practice for Persons with Severe Disabilities*, Vol.30, No.3, pp.113-120, 2006.
- [12] A. S. Halpen, C. M. Herr, N. K. Wolf, and J. D. Lawson, *Next Step: Student Transition and Educational Planning*, Austin, TX: Pro-Ed. 1997.
- [13] B. Abery, L. Rudrud, L. Schauben, and J. Smith, “Evaluation a multicomponent program for enhancing the self-determination of youth with disabilities,” *Intervention in School and Clinic*, Vol.30, No.3, pp.170-179, 1995.
- [14] 김계현, 이윤주, 왕은자, “국내 집단상담 성과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상담학 연구, 제3권, 제1호, pp.47-62, 2002.
- [15] 이영철, 신은희, “교과중심의 자기결정 프로그램이 지적장애학생의 자기결정능력에 미치는 영향,” *지적장애연구*, 제12집, 제4호, pp.67-95, 2010.
- [16] 박성우, 김용욱, “자기결정 프로그램이 경도정신지체 학생들의 자기결정력과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제6권, 제2호, pp.135-154, 2005.
- [17] 김수진, 정대영, “자기결정력 향상 프로그램 적용이 경도 발달장애 중학생의 자기결정력 증진에

미치는 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제27권, 제1호, pp.169-196, 2011.

[18] 배영철, 전보성, “디지털카메라 조작을 통한 자기결정프로그램이 지적장애학생의 자기결정능력에 미치는 효과,” 지적장애연구, 제10집, 제4호, pp.123-143, 2008.

[19] 신진숙, 최진성, “동영상애니메이션을 이용한 자기결정프로그램의 적용이 중등도 지적장애학생의 자기결정과 자기표현력에 미치는 효과,” 정신지체연구, 제10집, 제1호, pp.33-53, 2008.

[20] 임은영, 김자경, 김기주, 김주영, “자기결정프로그램이 경도정신지체 아동의 자기결정력에 나타난 효과,” 정신지체연구, 제9권, 제2호, 2007.

[21] 조인수, 윤형진, “강점지능을 기반으로 한 자기결정훈련 활동이 지적장애학생의 자율성에 미치는 효과,” 지적장애연구, 제11집, 제2호, pp.1-20, 2009.

[22] 김혜경, “자기결정훈련프로그램이 정신지체고등학생의 자기규칙과 심리적 역량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제4권, 제2호, pp.87-108, 2003.

[23] 이영미, “장애청소년의 자기결정력증진 프로그램의 효과성연구: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제21호, pp.260-286, 2006.

[24] 최진성, 동영상 애니메이션을 이용한 자기결정프로그램의 적용이 중등도 지적장애학생의 자기결정과 자기표현력에 미치는 효과, 창원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25] 장유정, 초등학생의 생태학적 자기결정력 신장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이화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26] 류숙렬, 자기결정 활동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전이기 경도장애학생의 자기결정력 증진에 미치는 효과,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02.

[27] 윤형진, 다중지능특성에 따른 강점기반 자기결정훈련이 지적장애학생의 자율성과 사회적 적응행동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

문, 2009.

[28] 김정연, 자기결정프로그램이 초등학교경도장애 학생의 선택하기 기술과 사회적 적응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고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29] 신은희, 교과중심의 자기결정프로그램이 지적장애학생의 자기결정능력에 미치는 영향, 우석대, 석사학위논문, 2010.

[30] 김재홍, 자기결정훈련이 지적장애학생의 직업적응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 석사학위논문, 2014.

[31] 윤형진, 다중지능특성에 따른 강점기반 자기결정훈련이 지적장애학생의 자율성과 사회적 적응행동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32] 한승희, 자기결정훈련프로그램이 학습부진아의 문제해결력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 석사학위논문, 2005.

[33] 박정임, “장애아동을 위한 사회기술훈련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콘텐츠학회지, 제14권, 제12호, pp.218-229, 2014.

저 자 소 개

박 정 임(Jung Im Park)

정희원



- 2002년 8월 :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 박사)
- 2004년 3월 : 서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 정신보건, 가족복지